

추수감사의 참 뜻

The True Meaning of Thanksgiving

신명기 16:13-1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 설교

13년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칠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15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칠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년회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메이플라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지키는 교회 명절이지만 오늘이 뭐 하는 날입니까? 찬송을 감사 위주로 많이 부르고 감사헌금도 드리는 날입니까? 오는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지요. 미국의 국가공휴일인데 이 날은 또 뭐 하는 날입니까? 하루 쉬면서 식구들 모여 터키 먹는 날입니까? 아니면 풋볼 보는 날입니까? 이름은 감사절인데 누구한테 뭘 감사합니까? 오늘 오랜만에 역사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영어로 Thanksgiving Day를 말할 때는 으레 메이플라워호에서 시작합니다. 이 배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하지요. 청교도는 처음 영국에서 왔습니다. 천 육백년대 초반, 온 유럽이 종교개혁을 하느라 분주할 때 영국에서도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개혁 때문에 서로 많이들 싸웠습니다. 그리니 수가 적은 청교도는 핍박을 받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란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허허벌판이던 아메리카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꼭 하나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논밭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영국 정부에 식민지 개척 신청을 해 허드슨 강 주변에 식민지 개척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돈이 문제였는데 마침 식민지 개척에 관심이 있던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년 동안 수입의 얼마를 내는 조건으로 이들의 재정지원을 받아 배를 한 척 구입했습니다. 사업가들도 따로 배를 한 척 전세를 냈는데 그 배가 메이플라워였습니다. 1620년 여름 배 두 대가 함께 영국을 출발했는데 청교도가 탄 배가 고장이 나 돌아왔고 두 번째 출항했다가 그 배가 또 고장이 나 결국 청교도가 산 배는 버리고 다 메이플라워호로 옮겨 타기로 했습니다. 자리가 모자라 스무 명 남짓 빠지고 배에 탄 사람은 모두 10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지요? “필그림 파더스 (Pilgrim Fathers)”라 부릅니다. 순례자 아버지, 그런 말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꽤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대부분 이삼십 대였고 전체의 삼분의 일이 어린이였습니다. 배가 두 번이나 고장이 나 출발이 몇 달 늦어진데다가 가는 길에 폭풍우도 만나고 해서 고생을 직사하게 한 다음 배가 드디어 아메리카에 닿았는데 이미 십일월 초였습니다. 닿은 곳은 허드슨 강보다 훨씬 북쪽인 케이프카드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싶어 다른 곳을 두루 찾다가 결국 상륙한 곳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였습니다. 때는 십이월 중순, 이미 겨울이 시작된 다음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청교도가 플리머스에 가면 플리머스 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큼직한 돌에 1620이라고 새겨놓았는데 돌레에 돌기둥으로 된 집을 지어 그 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상륙한 바위라 하는데 정말 거기 상륙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백년도 더 지난 뒤에 누가 이게 청교도가 처음 발을 디딘 바위다 하니까 거기 숫자도 새겨 넣고 해서 지금은 그냥 청교도가 상륙한 걸 기념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플리머스에 처음 상륙해 보니까 버려놓은 움막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다가 질병으로 전멸되어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는 동안 배에서 한 명이 죽어 101명이 일단 상륙을 했습니다. 십이월 중순입니다. 살 집도 제대로 없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배로 돌아가 지낸 사람도 있습

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줄 알았는데 겨울을 나면서 보니 배에서 한 건 고생도 아니었습니다. 겨울 몇 달 동안 추위에다가 질병까지 쏘고 지나가는 바람에 하루 평균 두 명이 죽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보니 101명 가운데 절반이 못 되는 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천 명 가운데 어린아이가 절반이고 어른 가운데 여자는 넷뿐이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메이플라워호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넨 배니까 가야지요. 그런데 청교도나 사업하러 온 사람은 모두 남았습니다. 남아서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참 고맙게도 가까이 살던 원주민 두 부족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영어도 할 줄 알아서 말도 잘 통했고 계약서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부족사람이 다른 부족에게 납치되었을 때는 청교도들이 가서 구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우며 수고를 해 그 해 가을에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농사가 상당히 잘 났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하던 그대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도 해마다 가을이면 그 해 농사지은 걸 두고 잔치를 열었거든요? 그 잔치에 원주민을 초대했습니다. 청교도 신 명과 원주민 아흔 명이 함께 잔치를 벌였는데 음식은 막 잡아온 야생 터키를 비롯해서 거위, 오리에다가 원주민이 잡아온 노루 고기까지 있었고 바다에서 가 까워 랍스터, 조개, 굴, 생선에 또 농사를 지었으니까 오이, 당근, 양파, 옥수수에다 과일까지 푸짐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 잔치는 그 해에만 한 번 있었고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잔치였는지 아니면 도와준 원주민에게 보답하는 잔치였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했던 잔치는 교회의 전통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잔치였겠지만 원주민을 초청해 그런 똑같은 잔치를 가졌는지 그건 자료가 전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첫 해 가을에 벌인 그 잔치가 오늘 온 나라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인지 그것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첫 잔치가 있고 오십 년쯤 지난 다음 매사추세츠의 찰스타운에서 감사절을 선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유월이었습니다. 그 선포문을 읽어보면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벌써 이주민 수가 늘고 자리도 상당히 잡혀 그런지 원주민하고 사이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원수처럼 싸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포한 감사절 선언문에는 오십 년 전에 원주민들과 함께 즐기던 그 감사절과는 달리 원주민의 위협에서 지켜 보 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참 안타까운 한 부분이지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각 주별로 가을에 추수감사 행사를 꾸준히 해 왔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한 직후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축제일로 선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얼마 뒤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 거의 백 오십 년 전이지요,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미국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만 지키던 잔치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남북전쟁으로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엮어 보겠다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지금은 11월 마지막이 아닌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의 잔치

첫 잔치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었든 아니면 원주민에게 보답하는 것이었든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절대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 있을 때 지켰던 가을 잔치도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추수를 마친 다음 해 동안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잔치였습니다. 아메리카로 옮겨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추수감사절은 공휴일은 아니었지만 모두 교회에 모여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워싱턴이나 링컨이 선포한 감사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든 이 추수감사절의 바탕은 교회가 지켜오던 기독교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이겠지요? 신약성경은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어떤 날을 정해 지키는 걸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날을 지키다가 옛날 안식일을 지키듯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추수감사 전통은 구약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율법을 지키듯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 잔치에 담겨 있는 뜻을 잘 살려 그 뜻에 맞게 지킵니다. 그러니 주 예수 안에서 지키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축제가 한 해에 세 번 있었다는 말이지요. 뭘 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고기를 먹고 죄 없는 삶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무교절이라 불렀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뜻을 많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 날 세우신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둘째는 칠칠절입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칠 주 뒤에 오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입니다. 또 칠칠은 사십구, 사십 구 일 다음에 오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고 초실절, 보리를 거두고 드리는 제사여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은 엄숙한 무교절과 다르게 먹고 노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만 온 식구마다 손님까지 다 모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역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감사드릴 이유가 뭐가 또 있었습니까 (신 16:12)?

초막절 잔치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고 농사지는 곡식과 포도주를 창고에 저장한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잔치입니다. 거두어 갈무리하는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넉넉하게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 14:16-17).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 수장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수장절은 집 마당에 움막을 치고 거기 들어가 지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멋진 텐트가 아니라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움막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어지는 잔치인데 좋은 집 놔두고 왜 움막에 들어가 지켜야 됩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광야에 살 때 살았던 집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새 곡식으로 밥 지어 먹고 햇과일도 먹고 새 포도주까지 한 잔 들이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올 한 해 햇볕 주시고 비 주셔서 곡식을 키워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올해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기 전에 나를 노예생활에서 건져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움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 지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움막생활에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지금 몸은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안정도 됐지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이 타국입니다. 우리 고향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나라가 우리 고향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을 나그네로 살다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목표인 영원한 본향에 두고 거기를 향해 오늘도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좀 오래 살다 보니 삶이 꽤 안정이 됐습니다. 집도 있지요. 한 해 농사 잘 지어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이 바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 영혼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 영혼아, 마음 폭 놓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눈에 보이는 곡식,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포도주, 이게 단 줄 알면 우리 영혼은 위기에 빠집니다.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움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주 불편하게 며칠 지내면서 내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래, 난 나그네지. 여긴 내 고향이 아니지.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않도록 조심하자. 풍성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그걸 잊지 않고 천국 가는 나그네 길을 잘 가라고 주신 게 이 초막절입니다.

은혜와 감사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우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 내가 누군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잘 간직할 것인지 생각합니다. 특별히 칠 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였습니다 (신 31:10-13).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한 뒤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 때도 성경학자 에스라를 불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 8:13-18).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불신앙의 죄에 빠졌던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배은망덕의 죄를 짓지 말자 다짐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겠지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듣는 걸 즐기는 사람이 많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건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도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움막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우리 식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여러 가지로 소외되었던 고아와 과부를 불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면서 또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일입니다.

초막절은 축제입니다. 축제가 됩니까? 축제는 일상을 잠시 벗어나 쉬면서 일상의 뜻을 되새기는 기간이라 했습니다. 좋은 집 잠시 떠나 움막에 살면서 내 사는 뜻을 돌아봅니다. 시작은 추수감사입니다. 한 해 농사지은 걸 즐기면서 만물을 주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움막에 들어가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켜주시고 먹고살게 해 주시고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잘 지내고 직장에 나가 맡기신 일 잘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추수에서 시작된 감사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면 이제 우리 삶 전체가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 아닌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을 갖게 되니까요. 믿음의 눈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눈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게 뭐가 아까워 나에게 안 주시겠느냐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은 곧 감사의 눈이 됩니다. 상황 따라 드리다 말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모든 일로 드리는 감사가 그래서 가능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희생되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먼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갖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 시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일 경우 제사장 몫도 있지만 함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이웃끼리 서로 나누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웃과 나눕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께서 죽어 주셨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입은 은혜 역시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7).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 13:15). 그냥 노래 흥얼거린다고 찬송이 되는 것 아니지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일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미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랑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 13:16). 감사의 제사는 모두가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참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감사드리자

오늘은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쁨의 감사, 큰 감사, 깊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도 부르고 감사의 헌금도 드리고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의 표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이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으로 아직도 고생하는 이웃이 많지요. 허리케인이 안 와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로 고생하는 먼 이웃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 못 챙기지요. 이런 기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안 챙기면 영 못 챙길 겁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고맙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은 감사를 훈련하기 좋은 기간입니다. 올해의 불평 불만을 돌아보며 그걸 없애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서 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일을 두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기를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된다면 아마 이 감사절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